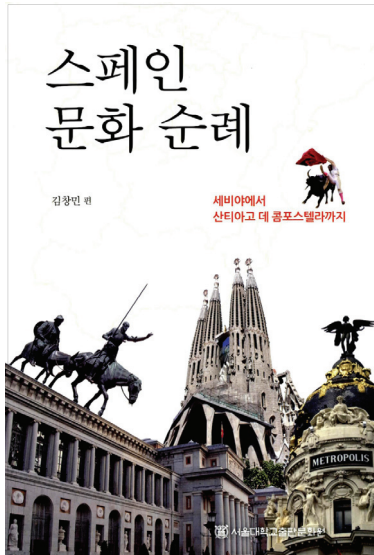


신간소개 | Books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스페인 문화 순례 - 세비야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김창민 (엮은이)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출간일: 2013-08-20

ISBN(13): 9788952114792

504쪽 | 225*150mm

스페인이 콜럼버스의 항해를 계기로 대서양을 장악해서 제국을 건설한 해양국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중세에 이미 지중해의 해양제국이었던

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세계 최초의 근대소설 『돈키호테』가 17세기 스페인 사회의 시대상을 비판적으로 재현하고 자유주의 정신을 담아내는 선구적 작품이라는 것과, 이미 19세기 프랑스 화단에서 스페인의 벨라스케스와 고야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이 지대했고, 수많은 화가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일반 독자에게 스페인 문화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상식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기획하였다. 이 책에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스페인을 연구자의 눈으로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평이한 문장으로 스페인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조명하고 나아가 현재 스페인의 일상을 소개함으로써 스페인 문화를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자 하였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2666

로베르토 볼라뇨 (지은이) | 송병선 (옮긴이)

출판사: 열린책들

출간일: 2013-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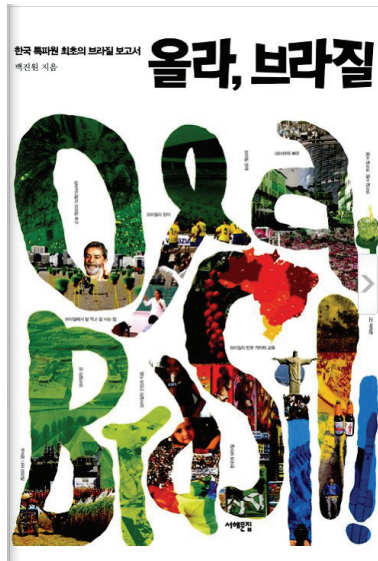
ISBN(13): 9788932962375

1752쪽 | 188*128mm

로베르토 볼라뇨 장편소설. 2003년 볼라뇨가 간 질환으로 세상을 뜨고 몇 달 후에 출간된 그의 유작이다. 작가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 가며 이 세상에 내놓은 이 작품은 1,752쪽 분량의 전례 없는 대작이었고, 출간 즉시 스페인어권 문단으로부터 ‘금세기 최고의 소설’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스페인과 칠레의 문학상을 휩쓸었다.

이 작품이 전 세계 독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볼라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혼신을 다해 완성한 마지막 작품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끌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작품 외적 요인보다도 독자들이 이 작품 『2666』에 관심을 집중한 까닭은 생전에 볼라뇨가 이 작품에서 세계 최악의 범죄 도시인 후아레스의 여성 연쇄살인사건을 다루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가는 80년이란 시간과 두 개의 대륙을 넘나들며 수수께끼의 연쇄살인마와 유명 작가를 두 중심축으로 내세워 전쟁, 독재, 대학살로 점철된 20세기 유럽 역사에서 인간의 악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어 왔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보리스 안스키의 일기에서 서술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범죄와 제2차 세계 대전의 홀로코스트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멕시코 국경으로 상징적으로 수렴되며, 1백 명이 넘는 여성 연쇄살인사건으로 재생산된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올라, 브라질 - 한국 특파원 최초의 브라질 보고서

백진원 (지은이)

출판사: 서해문집

출간일: 2013-0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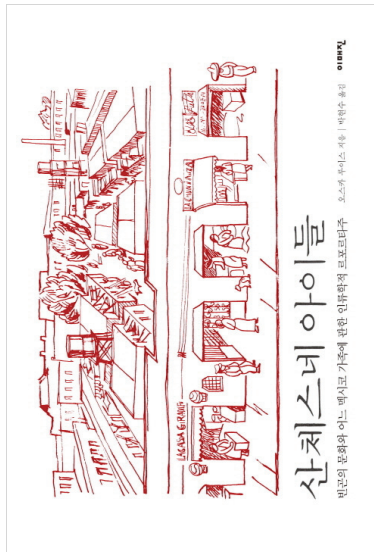
ISBN(13): 9788974836214

392쪽 | 210*152mm

당신은 브라질에 대해서 몇 가지나 말할 수 있을까? 삼바, 축구, 아마존..., 아마도 이 세 단어를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다. 브라질이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리우 올림픽 개최국이라는 뉴스는 들었을지 몰라도 정작 브라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 알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브라질 여행서는 몇 권 있어도 브라질을 제대로 분석한 책은 드물다. 함께 생활하고 대화를 나눈 경험이 없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브라질의 안팎이 이 책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우 올림픽 개최국이라는 뉴스는 들었을지 몰라도 정작 브라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 알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브라질 여행서는 몇 권 있어도 브라질을 제대로 분석한 책은 드물다. 함께 생활하고 대화를 나눈 경험이 없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브라질의 안팎이 이 책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브라질은 한반도 면적의 37배, 남한의 85배나 되는 큰 나라다. 이 책은 브라질의 동서남북, 하늘과 땅과 물과 그 속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소개한 책이다. 특파원의 예리한 눈과 부지런한 손과 발 그리고 꼼꼼한 머리가 써나간 브라질 보고서다. KBS특파원으로 3년 동안 브라질과 남미를 발로 취재한 저자가 한국 특파원으로는 최초로 브라질 보고서를 펴냈다. 생생한 스토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방대하고 치밀한 통계로 전문연구서와 대중의 눈높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냈다. 이 책은 여행자의 시각으로 브라질의 겉모습을 소개한 여행서가 아니며, 책상에 앉아 분석한 학술서도 아니다. 역사와 문화, 신화와 전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담아 브라질 사람들의 생활과 삶의 여러 모습을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 책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산체스네 아이들

오스카 루이스 (지은이) | 박현수 (옮긴이)

출판사: 이매진

출간일: 2013-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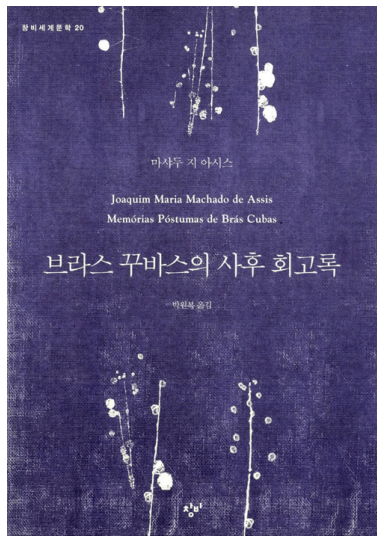
ISBN(13): 9791155310113

759쪽 | 223*152mm

서울에는 상계동 달동네가 있었다. 브라질에는 파벨라가 있다. 그리고 멕시코에는 베신다드가 있었다. 모두 빈민가를 부르는 이름이다. 대륙을 뛰어넘어 몇 십 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빈곤’은 그 얼굴만

조금씩 달리한 채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왔다. 그 빈곤의 얼굴을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본 책이 있다. ‘빈곤의 문화’라는 유명한 개념을 제출한 20세기 빈민 연구의 역작이자 인류학의 고전, 『산체스네 아이들』이다. 그리고 이 책이 처음 한국에서 출간된 지 35년 만에 50주년 기념판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다. 인류학자 오스카 루이스는 아내 루스 루이스와 함께 멕시코시티의 베신다드(빈민가) 카사그란데에서 살아가는 어느 가족의 생애사를 4년에 걸쳐 치밀하게 인터뷰하고 세세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다섯 명 가족의 낱것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1인칭 서사로 옮겨냈다. 그 결과물은 방대한 양의 “소설과 인류학 논문의 중간 형태”라 부를 만한 독특한 책으로 탄생했다.

특히 50주년 기념판에는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가 책에 관해 보낸 편지와 나중에 오스카 루이스의 공동 연구자가 되는 수전 M. 릭든이 쓴 개정판 서문과 후기가 더해졌다. 릭든의 글은 『산체스네 아이들』의 작업 과정, 출간 과정과 ‘빈곤의 문화’ 개념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 그리고 산체스네 가족의 후일담을 자세히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브라스 꾸바스의 사후 회고록

마샤두 지 아시스 (지은이) | 박원복 (옮긴이)

출판사: 창비

출간일: 2013-10-25

ISBN(13): 9788936464202

324쪽 | 210*145mm

브라질 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며 세계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브라스 꾸바스의 사후 회고록』이 드디어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소개된다. 19세기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 단연

가장 빛나는 거장으로 거론되는 마샤두 지 아시스의 작품세계에서 사실주의, 자연주의 문학으로의 전환점이자, 세계적 거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대표작이다. 아시스는 세계문학의 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작가인 까닭에 비교적 뒤늦게 소개되었으나, 수전 손택, 카를로스 푸엔테스, 해럴드 블룸 등 수많은 비평가와 작가들에게 열렬한 찬사를 받으며 오늘날 세계문학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 고전들과도 명맥이 닿아 있되, 포르투갈로부터 갓 독립한 브라질의 정치적 상황 등 당대 사회현실을 세심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 작품은 현대적인 문제의식과 문학적 실험으로 고유한 문학세계를 구현하여 여전히 ‘너무나 현대적’인 작품으로 조명되고 있다.

『브라스 꾸바스의 사후 회고록』은 자전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다른 자전소설과 달리 저승에서 이승의 삶을 회고하고 있다. 즉 세속적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난 죽은 사람이 화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독자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소설이 전개되는 것이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안데스 국가의 변화와 도전

김달관 (역은이)

출판사: 한울

출간일: 2013-11-30

ISBN(13): 9788946056190

320쪽 | 223*152mm (A5신)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산실, 서울
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 라틴아메

리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학계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전달하고자 기획한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시리즈 그 세 번째는 안데스 산맥의 세 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를 다루었다. 세 국가 모두 지하자원에 기댄 경제로 최근의 유리한 세계자원시장 덕분에 분배적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다. 세 국가의 최근의 정치 동향과 국가와 시장의 관계 등을 분석한 『누에바 소시에다드』(Nueva Sociedad)의 관련 논문을 번역하고 국내 연구자의 논문도 함께 실었다.

2010년 티키파야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볼리비아의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자본주의가 끝장나든지 어머니 대지가 끝나든지”라는 표현을 썼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다양성 및 자연과 조화에 기초한 공생의 새로운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과 경제 발전을 의심할 나위 없는 선으로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안데스의 소국인 에콰도르, 볼리비아, 그리고 페루는 비슷한 자연조건과 인구 구성, 라틴아메리카에 공통된 식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코레아와 모랄레스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희생, 경쟁 대신 대지와 원주민 전통을 되살려 조화와 공생의 삶을 추구하는 다른 길을 제시한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아르헨티나의 옷수선집

마리아 세실리아 바르베타 (지은이) | 강명순 (옮긴이)

출판사: 문학동네

출간일: 2013-08-26

ISBN(13): 9788954622141

420쪽 | 210*140mm

아르헨티나 출신의 독일 작가 마리아 세실리아 바르베타는 웨딩드레스를 모티브로 한 데뷔작 『아르헨티나의 옷수선집』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결혼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옷

수선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옷수선집 아가씨 마리아나. 그녀에게 결혼을 앞둔 아날리아가 웨딩드레스 수선을 맡기면서 두 사람의 삶은 묘하게 얹히기 시작한다.

지극히 여성적이고 단순해 보이는 설정이지만, 작가는 수많은 상징과 일러스트, 사진, 그림 등을 텍스트 곳곳에 배치하여 대단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의식과 무의식, 현재와 과거, 현실과 환상이 아름답게 직조되어 있는 이 작품은, 언제나 풀기 힘든 문제인 ‘사랑’이라는 수수께끼의 본질을 함께 풀어보라고 독자들을 조용히 유혹한다.

작가 마리아 세실리아 바르베타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독일로 건너와 독일어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독특한 이력의 작가다. 작가의 이러한 이력 때문인지 이 소설은 남미문학 특유의 환상소설의 서술 전통을 따르면서 독일어에 새로운 리듬감을 부여하여 “대단한 데뷔작”이라는 찬사를 얻기도 했다. 이 작품은 2008년, 그해 독일어로 출간된 최고의 데뷔 소설에 주어지는 ‘아스펙테 문학상’을 수상했고, ‘올해 가장 아름다운 책’ 후보에 오르며 큰 주목을 받았다.